

[종합]

지방 자치경찰제 올해부터 시행

인수위 국정과제 확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회의를 갖고 5대 국정지표와 21대 전략, 43개 핵심과제가 포함된 192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관련기사 4면〉

인수위는 이날 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내에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실시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농동적 복지 ▲삼기는 정부를 5대 국정지표로 결정하고 이를 21대 전략으로 세분화했다.

“활기찬 시장경제” 전략으로는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신 성장 동력 확보 ▲서비스산업 선진화 ▲일자리 창출이, ‘인재대국’ 전략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핵심인재 양성 과 과학한국 건설 ▲평생학습의 생

활화가 선정됐다.

“글로벌 코리아” 전략에는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실용적 통상의 교·농동적 개방 ▲세계로 나아가는 선진안보 ▲친환경 경제·에너지 구조 ▲아름다운 삶과 창의문화가, ‘농동적 복지’ 전략에는 ▲평생복지 기반 마련 ▲예방·맞춤·통합복지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삼기는 정부’ 전략으로는 ▲예산절감 과 공공기관 혁신 ▲국민편의 원스톱 서비스 ▲창조적 광역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사회 구현이 각각 제시됐다.

한편,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그 지역의 치안 등을 담당케 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2005년 11월 자치경찰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양업부의 범위와 실시단위 등을 둘러싼 정당 간 이견 때문에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리산 순한한우 ‘설 대박’ 이어 ‘FTA 파고’ 넘는다



지리산 순한한우 사업단은 올해 소 사육두수 목표를 3만5천마리로 늘려잡는 등 FTA 파고를 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사진은 24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보성군 예당면의 한 사육농가.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위생·품질 고급화로 ‘名品승부’

이달 말 사료공장 준공... 올 매출 300억 기대

지리산 순한한우 브랜드사업단(단장 박인희·45)은 새해 벽두부터 ‘전쟁’을 치렀다. 설 판매물량을 마련하기 위해 사육농가를 독려하고, 나주 도축장과 납품처를 오가며 가공과 배송과정을 점검하느라 6명의 직원들이 1월 한달내내 비상근무를 해야 했다.

박인희 사업단장은 “이번 설에 사업단 출범 5년만에 연간 출하두수 4천마리의 15.5%에 달하는 620마리를 공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설을 뒤 사업단은 또다시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한다. 올해를 ‘새로운 도약의 해’로 삼은 터라, 이에 따른 ‘대박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추진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첫 손가락에 꼽히는 프로젝트는 순천시 연합동 사업단 사무소 인근에 계획중인 전용 사료공장

(TMR)과 전·판매장 설립사업이다. 50여명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9월 착공, 이달말 준공예정인 사료공장은 FTA 파고를 헤치기 위한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 공장은 부지 7천평에 건평 1천평 규모로 연간 3만6천톤의 고급사료를 생산, 600여 참여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250여원에 그쳤던 매출을 올해 300억원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작업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사업단은 전체 사육두수를 지난해 2만5천마리에서 올해 3만5천마리로 늘려 주 납품처인 롯데쇼핑에 연간 5천마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평균 농가소득도 사육두수에 따라 5천만~3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3통(三統, 혈통·사

료·사육)·3고(三高, 위생·품질·신뢰) 시스템 ▲브랜드 프리미엄과 부가치 향상을 위한 유통마케팅 ▲회계·자금조달 등 공동브랜드 사업 시스템 등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사업단은 지난 2005년 롯데마트 54개소, 롯데슈퍼 40개소, 롯데백화점 1개소 등 95개소의 롯데쇼핑과 한우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해 지난해 매출 총액의 90%인 225억원을 판매해왔다.

박 단장은 “내년에는 사육두수 4만마리, 브랜드 출하두수 5천500마리를 달성, 시장 개방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지리산 순한한우 사업단은 지난 2003년 전남 동부권 7개 축협(고흥·곡성·구례·보성·순천광양·여수·장흥)으로 출범, 롯데쇼핑과 독점계약을 맺는 등 안정적인 운영을 해오고 있다. /이태정기자 itlee@kwangju.co.kr

광주고법원장 김관재씨 광주지법원장 오세욱씨

대법원 고위법관 인사 단행

대법원은 5일 광주고등법원장에 김관재 광주지방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58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 이태은 광주고등법원장은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광주지방법원장에는 오세욱 전주지방법원장이 임명됐다. (명단 20면)

이번 인사는 대법관 1명 증원, 재정신청제도 확대에 의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4개 증설, 법원장과 고법 부장판사의 사직 등이 요인이 됐으며, 전국법원장 28명 중 21명이 교체되는 등 대규모로 이뤄졌다. 상임 법원장 5명은 사법연수원 9·10기들로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이진성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춘천지방법원장에는 김태휘 서울고법 부장 ▲청주지방법원장에는 이재홍 서울고법 수석부장 ▲울산지방법원장에는 김수환 대구고법 수석부장 ▲제주지방법원장에는 이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 임명됐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자는 연수원 13기(1명), 14기(2명), 15기(10명) 등 모두 13명이다.

김진 출신인 김관재(54)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0년 광주지법 판사



〈김관재 고법원장〉 〈오세욱 지법원장〉

(사법연수원 7기)를 시작으로 25년간 광주·순천·전주지역에서 근무했다

오세욱(53) 신임 광주지방법원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광주지법 판사(연수원 8기)로 임관된 뒤 ▲장흥·순천지법장 ▲광주고법 수석부장 판사 ▲전주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정광주(53)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은 광주일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2년 광주지법 판사(연수원 9기)를 시작으로 ▲창원지법·광주지법 부장판사 ▲목포지법장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이상훈(51)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은 광주일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3년 인천지방법원 판사(연수원 10기)로 임관, 서울지법·서울·대구고등법원·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새정부 출범 뒤 유류세 10%인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의 10% 인하를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류세 10% 인하와 관련 “인수위 차원에서 조기 검토해 서민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였는데 기존 법령이나 시행규칙 개정 등 인

하 방식의 문제가 있어 새 정부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부대변인은 “유류세 인하와 통신비 절감, 신용회복 지원 등은 이명박 정부가 중점과제로 선정할 국정과제”라며 “이들은 궁극적으로 정부가 법령이나 제도를 정비하고 시장기능을 회복시키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남뉴스

Advertisement for '빛의만평' (Light's Manpyeong) by Kim Jung-do. It features a cartoon illustration of a person sitting at a desk with a lamp, looking thoughtful. The text includes the title and author's name.

전남도, 올 지방공무원 498명 뽑는다

채용계획도 홈페이지 공고

전남도는 5일 '2008년도 전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전남도청 홈페이지에 공고, 올해 498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행정직 208명, 기술직(연구·지도사 포함) 290명 등 36개 직렬·498명으로 지난해보다 143명이

늘었다. 직급별로는 7급 26명, 8급 1명, 9급 471명 등이다. 응시자는 2008년 1월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가 전남도에 있어야 한다. 다만, 고흥·해남·완도·진도·신안군 등 5개 지역 응시자는 해당 지역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타르피해 신청 접수 지연

설 이전 생계비 지급 불투명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로 타르피해를 입은 전남 서남해안 어민 상당수가 설 이전에 생계안정 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광·무안·신안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개 군은 정부의 생계안정 지원금 168억원을 지원받아 맨손어업과 마을어업, 어선어업, 김 양식업 및 가공업, 수산 양식업, 횡집 등 피해를 인정받은 주민들에게 최대 17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국고 교부 결정과 동시에 해당 군에 송금을 마무리하고 지급하도록 했지만 피해지역 어촌계 내부의 일부 주민 간 이견으로 신청서 접수가 늦어지는 바람에 설 이전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주정기자 jjnews@

이날 현재까지 전체 피해 어가 8천 400여 가구 가운데 피해규모가 명확한 김 양식장과 어선어업, 가두리 양식장 등을 하는 주민은 중심으로 1천 여 가구만 피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영광·무안 등 일부 어촌계에서 맨손어업을 하는 일부 어민들 사이에 실제 어업 종사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이 많아 지원금 신청서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해당 군에 빠른 시간 안에 신청서를 받아 생계안정 지원금이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독촉하고 있다.

지급절차는 읍·면에서 주민들로부터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어업종사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군에서는 개인별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게 된다. /김주정기자 jjnews@

Advertisement for '산행안내' (Mountain Hiking Guide) from the Jeonnam Provincial Office. It lists various hiking routes and events, including dates and locations like Gwangju and Jeonju.

Advertisement for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services. It lists various public services, including bus routes, public works, and community programs,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each.

Advertisement for 'www.jmacademy.kr' (JMAcademy). It promotes various educational and training courses, including English, computer, and business management, with contact details.

Advertisement for '주유소매매' (Gas Station Sale) and '분할합병공고' (Merger Notice). It provides information about gas station transactions and business mergers, including contact numbers and addresses.

Advertisement for '상무우리공인중개사' (Real Estate Agency). It lists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including property sales, rentals, and appraisals,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the agency.

Advertisement for '금당부동산' (Geomdam Real Estate). It promotes real estate services, including property sales, rentals, and appraisals,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the agency.